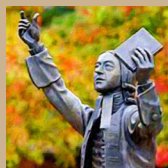


2021 월례회 공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1791년 3월1일 밤. 하나님 앞에 가기 하루 전 침상에서-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2021 기독교대한감리회

월례회공과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 ◆

머리말	2
서 문	3
제1단원 거룩한 습관	
1월 감리교인의 자녀 교육 - 거룩한 직무	4
2월 감리교인의 경건 훈련 - 습관의 힘	9
3월 감리교인의 공동체 생활 - 거룩한 공동체	14
제2단원 거룩한 마음	
4월 감리교인의 회심 체험 - 종교의 현관	19
5월 감리교인의 내적 할례 - 마음의 할례	24
제3단원 거룩한 신학	
6월 감리교인의 성서 이해 - 한 책의 사람	29
7월 감리교인의 전통 이해 - 복음의 전통	34
8월 감리교인의 이성 이해 - 성화된 이성	39
9월 감리교인의 체험 이해 - 거룩한 경험	44
제4단원 거룩한 삶	
10월 감리교인의 사랑 실천 - 거룩한 사랑	49
11월 감리교인의 경제 생활 - 거룩한 청지기	54
12월 감리교인의 사회 생활 - 사랑의 불꽃	59

2021월례회공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1791년 3월1일 밤. 하나님 앞에 가기 하루 전 침상에서-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

감독회장 이 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한국감리교회 평신도의 역할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성경이 처음 전해졌을 때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교회 설립의 주역이 된 것은 평신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신앙으로 민족계몽을 이끌었고, 민족의 수난 현장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동참하며 민족문화와 역사 전통을 지키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교회 분열의 시련 속에서 ‘하나 된 감리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며 교회부흥과 사회 갱신에 앞장서는 실천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역사적 체험과 유산을 간직한 한국감리교회 평신도에게는 이제 또 다른 선교시대를 내다보며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적으로 심하게 나뉘어있습니다. 이러한 때이기에 존 웨슬리가 기도하며 추구해 온 ‘다양성 속의 일치’,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조화’와 같은 소중한 신앙전통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해와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의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감리교회 내의 자기분열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와 일치의 신앙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평신도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앙회복, 복음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월 모임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여 오늘의 상황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신도월례회공과”가 정말 멋지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감리교회의 역사를 아름답게 장식한 평신도들은 순수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신도월례회공과”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1786년 존 웨슬리가 전해주었던 말입니다.

“저는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감리교가 종교의 형식만 갖춘 채 능력 없는, 죽은 교파가 될까 봐 두려울 뿐입니다.”

한국감리교회 평신도운동이 230년전 웨슬리의 염려를 뛰어넘어 2021년 올해는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로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자랑스러운 감리회 평신도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이 광 호 감독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흘러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으며 아직도 그 고난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잃은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와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참회’야말로 ‘종교의 현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한 참회와 자기 성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을 통해서, 잃었던 첫 사랑, 첫 열정, 첫 믿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영적 기회가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감리회 운동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영적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음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운동이었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사회운동이었습니다. 감리회 운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를 치유한 영성운동이었습니다. 영국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감리회 운동’들이 불꽃처럼 타 올랐습니다.

한국 감리회 역시 선교초기에 사회 각 분야에서 수많은 선각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존 웨슬리의 감리회 정신과 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건립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암울했던 시절 한국 사회의 희망의 빛이요 생명의 보금자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감리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실로 자랑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의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비운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사회평신도국을 중심으로 다시금 그 자랑스러웠던 감리회 운동이 감리회 평신도들을 통해서 새롭게 전개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교재는 감리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감리회 운동을 체계적으로 잘 다루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하는 감리회 정신과 감리회 운동을 웨슬리의 생애를 따라가며 주제별(거룩한 습관, 거룩한 마음, 거룩한 신학, 거룩한 삶)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로 18세기 존 웨슬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던 복음의 불꽃이 오늘 우리 감리회 평신도들의 가슴 속에 다시금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재 집필을 위해서 수고한 손길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제 1단원

거룩한 습관



감리교인의 자녀 교육 | 거룩한 직무 |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성경봉독 잠언 22:5~6

요 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하리라 (잠언 22:6)

말씀 증거 말은 이

2021년 대망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잃어버렸던 처음의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하여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의 모습을 세워가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패역한 자의 길’이고, 또 하나는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인간은 ‘도상 위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혜자는 ‘패역한 자의 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 길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이 ‘패역한 자의 길’이라면, 그 앞에 놓인 ‘가시와 올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면 나이가 들어 늙어도 결코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자녀 교육이란 이렇듯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지나칠 정도로 조기 교육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기 교육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이른 시기부터 세상의 초등학문을 빨리 습득하는 방법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존재로, 어떤 길을 걸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극심한 근심과 염려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길 위에서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인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우연히 감리교 운동을 전개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등 뒤에는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웨슬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철저한 청교도인이었던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그들 중 아홉 명은 출생 후 사망하였습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잔나 웨슬리는 남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슬픔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직무가 바로 신성한 자녀 양육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철저히 자녀 교육에 헌신합니다. 3남 7녀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그 집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아기 때부터 철저한 경건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교육과 훈련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웨슬리는 훗날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에게 가정교육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보내준 가정교육의 규칙은 이러했습니다.

1)언제나 규칙적인 방법에 따라 생활하게 했다. 2)생후 2년이 지난 후부터 회초리가 두려운 것을 알게 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했다. 3)회초리로 매를 맞을 때 소리 내어 울지 못하게 했다. 4)하루 세끼 외에 일체의 간식을 주지 않았다. 5)성결하고 온화한 성품을 위해 되도록 어릴 때 악한 의지를 파괴하고 나쁜 성격을 고쳐주려고 했다. 6)말을 배우면 곧 주의 기도를 가르쳐 잠잘 때와 깬 때 외우게 했다. 7)말을 배우면 성경 요절과 교리문답을 외우게 했다. 8)주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성수하도록 했다. 9)가족 기도회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10)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했다. 11)언제

나 경어를 사용하되 하녀에게도 경어를 사용하게 했다. 12)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못하게 하고 저주와 맹세와 무례한 말, 속된 말을 일절 금했다. 13)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하는 것을 금했다. 14)매일 가정 학교의 6시간 학습에 충실하도록 했다.

15)화재 사건 후부터는 아침저녁으로 시편을 읽고 시편 송을 부르게 했다. 16)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했다. 17)특별히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치 않았으며 엄하게 다스렸다. 18)잘못한 언행에 대하여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19)같은 잘못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책망하거나 매 맞는 일은 없었다. 20)순종한 일에 대하여는 언제나 칭찬하고 때때로 상을 주었다. 21)일단 순종을 했으면 성공하지 못했어도 따뜻하게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22)각자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보호해주고 아무리 작은 소유라도 남의 것을 침해하지 못하게 했다. 23)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했다. 24)남에게 한번 준 것은 다시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25)글을 다 읽을 때까지는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았다. 26)자녀를 다룰 때 엄격함과 느슨함을 균형 있게 사용했다. 27)사춘기에 들어서면 육욕적 사랑을 피하도록 가르쳤다. 28)매주 1회 한두 시간 동안 한 명씩 만나 상담하였다.

우연히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 목사요, 메소디스트 교회의 창시자요, 옥스퍼드대학교 교수요, 위대한 복음전도자요, 사회개혁자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수잔나 웨슬리처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자랑스러운 감리교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자녀들에게 스승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가?

.....

.....

(2)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

.....

찬 송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감리교인의 경건 훈련 | 습관의 힘 |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성 경 봉 독 디모데전서 4:7~8

요 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7)

말 씀 증 거 맑은 이

고대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의 나는 내가 그동안 반복해 온 행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이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이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의 미래, 자녀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습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우리의 미래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의 삶이 모여서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곳에 나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습관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밥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 말하는 습관, 일하는 습관, 노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걷는 습관, 여행하는 습관 등 다양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고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못 들이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속할 때, 그것이 비로소 몸에 배어 습관으로 자리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지 처음 배울 때는 기본적인 자세를 먼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기본자세의 반복훈련을 통해 그 운동에 적절한 습관을 신체에 각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무의식 속에서도 원하는 행동이 자유자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을 반복할 때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경건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버리기’와 ‘취하기’,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좇아 살아왔던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청산할 것을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옛사람의 의지,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감정, 옛사람의 삶의 습관을 청산해야 새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버린 다음에는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좇는 삶이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8세기 인본주의가 팽배했던 대학 캠퍼스 한복판에서 철저히 경건에 이르는 영적 훈련을 규칙적으로 행했던 젊은이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윌리엄 모건, 로버트 커크햄과 같은 젊은이들이 옥스퍼드대 캠퍼스 한복판에서 경건 소모임을 전개하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고전을 읽고, 소외된 어린이들을 돌보고, 감옥을 방문하여 사랑을 나누는 등 규칙적인 경건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홀리클럽(Holy Club)’, ‘거룩한 클럽’(Godly Club)’, ‘성서 벌레들(Bible Moths)’, ‘적선의 사람들(Supererogation Men)’이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메소디스트(규칙쟁이, Methodist)’란 명칭은 후에 크라이스트 처치의 존 빙햄이 “새로운 규칙쟁이들의 모임(a new set of Methodists)’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란 설교에서 당시 함께한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4명의 젊은이가 연합한 처음부터 각자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 오직 하나의 판단 규칙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면에서 성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열망했던 그들은 매시간 아니 매순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매우 규칙적으로 자신들의 영성 생활을 기록하며 자신을 훈련해 나갔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시간을 분으로 나누어 자신의 결심을 깬 것과 지킨 것을 자세히 기록한다. 일상적으로 하는 독서, 심방, 글쓰기, 대화, 여타 활동들을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헌신의 정도(평가를 1에서 9에 이르기까지 나누어서 한다), ‘단순성(simplicity)’, ‘평정심(recollection)’의 정도를 평가한다.”

어느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내가 하루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사흘을 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알고 일주일을 치지 않으면 내 팬들이 안다”라고 했습니다.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성 생활이 결정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부단히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할 때, 비로소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소유한, 능력의 감리교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열망하는가?

.....

.....

(2)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경건에 이르기 위한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

.....

찬 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문 다함께



제 1단원

거룩한 습관



감리교인의 공동체 생활 | 거룩한 공동체 |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성경봉독 히브리서 10:23~25

요 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5)

말씀증거 말은 이

하나님의 영은 ‘공동의 영’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도 홀로 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함께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갈라졌던 관계도 회복됩니다. 홀로 외롭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는 영이요,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박해와 두려움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며 그들이 서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참회하고 영적교제를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 자신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갔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사도바울 역시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이게 하는 영입니다. 반면 사탄은 분열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모임의 영적 가치’가 희석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내려놓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 내에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

체의 영적가치를 물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공동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 공동체를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의 설립자가 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한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철저히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은 철저히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전개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서로 영적으로 깊이 있는 돌봄과 교제의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웨슬리가 옥스퍼드대학 시절 작은 ‘홀리클럽(Holy Club)’을 통해서 경건생활을 하였던 것이 밑거름이 되었는데 이것을 ‘밴드(the bands)’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밴드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이를 위해 중보하였고 다섯 가지 규칙을 세워 준수하였습니다. 1)최소한 1주일에 1회 모인다. 2)약속된 시간을 반드시 지킨다. 3)찬송과 기도로 시작한다. 4)각자 차례대로 자유롭게 솔직하게 말하되 지난 모임 이후에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느낀 유혹에 대하여 고백한다. 5)회원 중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말을 한 후 다음 사람에게 그들의 상태와 죄와 유혹에 대하여 질문한다.

밴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성을 위한 밴드는 매주 수요일 저녁, 여성을 위한 밴드는 매주 주일에 모였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 날 저녁에 모이되, 먼저 기혼 및 미혼 남성들이 모이게 하고,

다음 달에는 기혼 혹은 미혼 여자들이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에는 다 함께 모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모임 때마다 초대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을 ‘애찬회(love-feast)’라고 불렀습니다. 애찬회의 음식은 늘 호밀 빵과 물이 전부였지만 언제나 만족하였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이들도 있었지만,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나태해지거나 기도의 열심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은 결국 죄의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런 이들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영적인 상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회자반’을 따로 만든 것입니다. 참회자반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주님을 만났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채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들에게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죄의 사슬을 온전하게 끊고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가족이나 친지들로 하여금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참회자반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 그들을 영적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감리교인으로서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영적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

.....

(2)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영적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

.....

찬 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감리교인의 회심 체험 | 종교의 현관 |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성경봉독 사도행전 2:37~41

요 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38)

말씀 증거 말은 이

기적 중의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사도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마 베드로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변화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며 주님의 곁을 떠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죄를 참회합니다. 그리고는 더이상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큰 찢림’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베드로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외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 2:38).”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첫 메시지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 4:17).” 우리의 삶의 AD와 BC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을 청산하고 새 사람을 덧입는 진정한 참회의 사건을 통해서 나눕니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은 철저한 참회의 운동이었습니다. 웨슬리 자신도 진정한 의미의 회심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웨슬리의 회심 체험은 철저히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첫 선교지였던 조지아주 선교에서 실패한 후 야간도주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깊은 영적 방황을 합니다. 당시의 마음을 웨슬리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1)불신앙. 내 마음이 곤경에 빠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바르게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마음이 곤경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2)교만. 내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교만을 갖고 있었다. 3)망각. 폭풍 가운데서는 매번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조용할 때는 부르짖지 않는다. 4)정신의 경솔함과 방만함. 가르침의 말보다는 원수를 대하듯 말을 한다.” 웨슬리는 이처럼 영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주여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웨슬리의 회심의 사건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웨슬리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무려 30차례 이상 ‘회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만큼 웨슬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회심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 빌러는 영적인 고뇌에 빠진 웨슬리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고 아직 죄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 죄를 극복하였는지 살펴보십시오. 간청하오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연기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죄인들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약속이 당신에게 막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표현할 수 없이 깊으신지요. 분명코 주님은 도울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외에는 그 어

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웨슬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하게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뵐러는 “당신은 구원자를 믿지 않을 만큼 충분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라고 응대하였습니다.

웨슬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결정적인 회심의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상한 무관심, 우울함, 냉담함, 자주 죄에 빠짐’으로 표현될 정도로 내적 침체 상태인 웨슬리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조그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모임에 참여했다가 놀라운 영적 회심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드디어 웨슬리의 삶에 영적인 평화가 도래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자신의 마음을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고 불안한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 나는 죄에서 자유롭고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변화의 사건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람이 광부이든지 노

동자이든지 혹은 농부이든지 사회적 계급에 대한 고려 없이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참회를 ‘종교의 현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되는 첫 출발지점이 바로 ‘참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참회의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참회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감리교인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참회의 체험’이 있습니까?

.....

.....

(2) 감리교인으로서 진정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

찬 송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감리교인의 내적 할레 | 마음의 할레 |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성 경 봉 독 로마서 2:28~29

요 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
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29)

말 씀 증 거 말은 이

생 텍쥐페리는 『어린왕자』를 통해 정말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본질이 아닌 껍데기입니다. 사랑, 우정, 믿음, 생각과 같은 소중한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폐가치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무가치한 것들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기에 ‘마음’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소리를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형들보다 외모는 출중하지 못하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기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너무 집중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외모를 꾸미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성형수술까지 감행합니다. 그 성형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성형수술을 잘하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수술해야 할 곳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거룩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생명의 근원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영성관리는 즉 마음관리입니다. 마음의 정원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영성이 결정됩니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은 처음부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영적 운동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1733년 새해 첫날, 옥스퍼드에 있는 성 마리아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잘 정돈된 한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웨슬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참된 할례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지체들이 세상과 육체의 정욕에 대해 죽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1765년 5월 14일에 웨슬리는 당시의 설교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마음의 할례에 대해 설교하였습니다.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과 분열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의 요체가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메시지 속에 모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할례자가 아닌 마음의 할례자가 진정한 할례자입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이란 논문에서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영혼의 습관적인 기질로서 신학서적에서는 거룩함이라고 표현하지요. 이는 직접 죄로부터 깨끗하여짐,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여짐, 그 결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덕들로 덧입음을 뜻합니다.” 웨슬리가 평생을 통해서 강조했던 ‘성화’, 즉 ‘거룩함’은 바로 마음의 할례에 있었습

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겸손과 믿음도 결국 마음의 할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의 겸비함을 배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보여준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병을 깨달아 교만과 헛됨에서 벗어나 마음의 할례로 주어진 새로운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때 믿음만이 이들을 온전하게 하는 바, 믿음은 이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주어진 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리교운동의 시작과 끝이 ‘마음의 할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성화되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마음이 거룩한 삶을 가져옵니다. 내적 성화의 시작이 바로 ‘마음의 할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감리교인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꾸미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행복에 이르는 여덟 가지 길도 결국 마음에 달려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우리의 외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입니까? 외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

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감리교인의 거룩한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

.....

(2)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마음의 정원을 얼마나 가꾸며 사십니까?

.....

.....

찬 송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감리교인의 성서 이해 | 한 책의 사람 |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성경봉독 마태복음 4:3~4

요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
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4)

말씀 증거 말은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서부터 자동차 소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문명의 소리가 너무나 요란하다 보니,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시 119:71~72).”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가장 보배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천천 금은보다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실로 다윗을 다윗 되게 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로 당신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들려온 소리는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거부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굽주리신 주님께 사탄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뿌리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으로 접근합니다. 당시 주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굽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빵이었을 것입니다. 영악한 사탄은 그것을 알고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란 듯이 사탄의 제의를 거절 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만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도 말씀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감리교운동 역시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운동을 전개하면서 “감리교인의 특징”이란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실로 성서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는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유대인, 회교도 및 이교도와 구별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에 유일하고 충분한 법칙임을 믿는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가톨릭교회의 신자들과 구별된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를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감리교 운동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 5번인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와 감리회 신앙고백 4번인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에 잘 계승되어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운동을 전개하면서 꿈꾸었던 그리스도인 상은 바로 ‘성서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웨슬리는 1786년 헨리 브룩에게 보낸 편지에서 옥스퍼드 감리회원은 ‘성서 그리스도인(Bible Christians)’이 되는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오직 한 책의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사실, 곧 하늘로 가는 길을 알고 싶다. 그 행복한 항구에 어떻게 안착할 수 있을는지, 하나님 자신이 그 길을 가르치시려고 내려오셨다. 이 목적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는 그 길을 책에 기록하셨다. 그 책을 나에게 달라! 값에 구애 없이 하나님의 책을 나에게 달라!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나를 위해 충분한 지식이 담겨 있다. 나를 한 책의 사람(homo unius libri)이 되게 하라.”

물론 웨슬리가 다른 서적들의 가치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웨슬리는 다독가였습니다. 의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을 읽고 정리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들 중에 최고의 권위는 바로 성서에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또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성서는 크리스천들이 모든 진정한 또는 가상적인 계시들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그들은 매사에 있어서 그것으로 모든 생각을 검토하기 위하여 율법과 증거에 호소한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는 감리교운동의 기준이며 동시에 영적 동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과 실천의 문제 있어서 최고의 권위에 성서를 올려놓았던 종교개혁자들의 영성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인은 철저히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경홀히 여기거나 그것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감리교인이 아닙니다.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은 처음부터 말씀 운동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개된 영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들이 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

.....

(2)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성서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

.....

찬 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감리교인의 전통 이해 | 복음의 전통 |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성 경 봉 독 데살로니가후서 2:13~15

요 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후서 2:15)

말 씀 증 거 말은 이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은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전통은 한 공동체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것이 그 공동체에 유익하기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오랜 삶의 자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그 가르침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이나 서신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전승된 복음의 전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역시 복음의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감리교운동은 교회의 전통을 무시한 채 일어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리교운동은 철저히 기독교 전통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전개된 영적 운동이었습니다. 첫째로, 감리교운동은 초대교회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웨슬리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전통을 성서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웨슬리는 사도신경과 니케아신조를 정통 기독교의 신조로 인정하며 초대 교부들의 신학사상과 경건의 전통을 존중하고 계승하였습니다. 웨슬리가 ‘한 책(성서)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해서, 성서 외 다른 책들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웨슬리는 엄청난 다독가였고,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을 탐독하였습니다.

특히 웨슬리는 어거스틴, 오리겐, 이레니우스와 같은 초대교회 신학자들과 동방 교부들의 영적 신학적 전통을 본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니다. 웨슬리는 라틴어권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서방 교부들보다는 그리스어권의 보다 영성적이고 실천적인 동방교회 교부들을 좋아했습니다. 감리교운동이 복음적이고, 규칙적이며, 실천적인 것은 동방교회의 수도원적인 영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감리교 운동은 결코 영국성공회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승하였습니다. 18세기는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난지 200년이 지난 후였지만, 여전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영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톨릭은 전통의 권위를 강조하였던 반면 개신교는 성서의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영국 성공회 사제였던 웨슬리는 성공회가 추구했던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도의 길이라는 제3의 새로운 길을 자신의 전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공회가 유지했던 전통과 성서와 이성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거기에 경험을 추가해서 사변형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셋째로, 감리교운동은 경건주의 전통을 계승하였습니다. 경건주의는 17세기 독일 개신교회 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던 정통주의가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정신과 열정이 사라지고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로 변질되자 다시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 영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 경건주의입니다. 웨슬리는 1735년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 가는 배에서 경건주의자들인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와 같은 신학적이고 영적인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계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영적 권위를 지닌 성서의 빛에서 그 전통을 재해석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너무나 개인적인 경건 주의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성서적이지 않았기에 웨슬리는 훗날 독일 경건주의, 정적주의와 결별하였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전통은 신비주의나 개인주의로 빠지지 않고 성서를 건강하게 해석하게 해주는 성서 해석의 큰 기둥이었습니다. 동시에 성서는 계승할 전통과 그렇지 않을 전통을 구별해주는 가장 권위 있는 잣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리교운동은 전통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전통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건강한 기독교 영성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있습니까? 왜 그들이 사이비 사교단체가 되고, 이단 종교집단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기독교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리교운동은 그들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기독교영성운동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초대교회 전통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복음주의 혹은 경건주의를 자처하면서, 자칫 초대교회 기독교 전통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통에 대한 권위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통의 빛에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오랫동안 살아 역사해온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전통을 잘 계승하는 자랑스러

운 감리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초대교회 전통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

.....

(2)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교회의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

.....

찬 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문 다함께





감리교인의 이성 이해 | 성화된 이성 |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89장 (샤론의 꽃 예수)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3:1~3

요 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1)

말 씀 증 거 말은 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자주 ‘이성’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성적인 것을 비신앙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이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성은 결코 비신앙적인 것이거나 불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지혜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고, 이성을 통해서 말하고, 이성을 통해서 느끼고,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고, 이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성을 통해서 행동합니다. 이성이 없는 인간의 삶의 자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성을 부정적으로 치부해온 것은 기독교의 왜곡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화된 이성이고, 또 하나는 왜곡된 이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거해야 할 이성은 바로 성화된 이성이 아니라, 왜곡된 이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성은 우리의 삶을 비신앙적이고, 불경건한 삶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이성이 거룩하게 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세 가지 바른 신학교육 방법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텐타티오’입니다. 오라티오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왜곡된 우리의 이성이 성화된 이성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곡된 이성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거룩한 이성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각은 이성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의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왜곡된 이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1757년에 ‘방황하는 생각(Wandering Thoughts)’이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 10:5)”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방황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방황하면, 우리의 삶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마치 배의 키와 같습니다. 키가 배를 조종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방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감리교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성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웨슬리가 복음주의자여서 이성의 가치를 경멸하거나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핵심이 성서에 계시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에 의해서 조명되고, 이성에 의해서 해석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룩한 도구이며 통로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신학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을 통해서 해석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성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이성적 작용이 없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성은 우리의 은혜의 통로이며 은총의 수단인 것입니다.

웨슬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이성을 위하여 성서 외에 수많은 책을 탐독하였습니다. 기독교 고전을 통해서 경건한 이성을 갖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읽었던 수많은 책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문고집 (Christian Library)』입니다. 이것은 웨슬리가 1749년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경건문학 작품들을 읽고 편집한 14,000쪽이 넘는 50권의 기념비적 전집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15권 이상으로 구성된 전집인 『웨슬리 소논문집』과 『존 웨슬리 목사 전집』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평신도 설교자들의 신학적 요청에 부응해서 출간된 것입니다.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들이 영적인 오류를 피해서 건강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들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모든 감리교도들이 건강한 신학적 이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도회에 『기독교 문고집』을 비치하여 읽도록 권장하고, 연회록 독서목록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여 생애 말년까지 모든 감리교도들에게 독서를 널리 권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모르는 복음주의적 부흥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독가였으며 얼마나 위대한 실천 신학자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웨슬리는 누구보다도 이성의 가치를 알고 경건하고 거룩한 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서

를 권장하였던 독서광이었으며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감리교운동이 다른 경건주의나 복음주의 운동에서 볼 수 없는 위대한 사회 복음적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그의 깊은 학문적 영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이성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뿌리 깊은 영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이성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

.....

(2)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독서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

.....

찬 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제 3단원

거룩한 신학



감리교인의 체험 이해 | 거룩한 경험 |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경봉독 사도행전 2:1~4

요 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
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4)

말씀증거 말은 이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경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든 직접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단 한 번도 강력한 성령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같은 제자는 온 30년 때문에 주님을 배신합니다. 주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자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은 주님의 품을 떠나 각기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들에 의해서 전개되었습니다.

기적 중 최고의 기적은 바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박해했던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신비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영적경험이 사울을 사도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바울은 박해자가 아닌 사도, 전도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경험은 우리의 삶을 이처럼 놀랍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 경험의 힘을 믿었던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웨슬리는 성서, 전통, 이성이라는 영국성공회의 신앙의 권위에 ‘경험’을 추가함으로써 소위 사변형신학을 완성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살아있는 경험이 없는 성서와 전통과 이성만은 기독교를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당시 영국성공회는 아무런 사회적 영향력을 갖지 못한 채, 무기력한 종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감리교운동을 전개하면서 처음부터 경험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무리 규칙적으로 경건생활을 해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음을 웨슬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 자신의 성령체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누구보다도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의 권위를 존중하고 기독교 고전을 수없이 탐독하여 누구보다도 경건한 이성을 소유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체험 이전의 웨슬리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복판에서 모라비안 교도들과는 달리,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듭니다. 자신만만하게 떠났던 첫 선교지 조지아주에서는 쇼피 합키와의 스캔들에 휘말려 야간도주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성령체험 전의 웨슬리의 삶은 완전히 좌절과 낙심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성서와 전통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이성도 무너져 내리는 그의 영적인 삶을 붙잡아 주지 못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의 성령체험을 통해서 웨슬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우울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자

신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영적경험이 감리교운동의 강력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웨슬리의 회심을 가능하게 하였던 영적경험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웨슬리의 결정적인 복음적 회심이 있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영적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수잔나 웨슬리를 통해서 경험했던 경건훈련과 엠피스 목사관 화재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출된 경험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시절의 거룩한 독서와 홀리클럽의 경험들과 미국 조지아주 선교와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 등이 복음적 회심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영적체험은 이처럼 오랜 과정의 산물입니다. 그 이전까지 아무런 노력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열망하고, 오랫동안 갈망하며, 찾고 또 찾고 몸부림쳤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결정적인 성령체험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인으로서 과연 결정적인 복음적 회심을 경험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영적체험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머리만 냉철한 감리교인이 아니라, 가슴까지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웨슬리가 경험했던 성령체험과 중생체험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영적경험의 중요성을 인정합니까?

.....

.....

(2)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복음적 회심을 경험하였습니까?

.....

.....

찬 송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감리교인의 사랑 실천 | 거룩한 사랑 |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 경 봉 독 요한일서 4:10~11

요 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11)

말 씀 증 거 맑은 이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을 통해서,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면, 돈으로 사는 것 같고, 권력으로 사는 것 같고, 명예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으로 살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삽니다. 제자는 스승의 사랑으로 살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만약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모두 쓰러져 죽고 말 것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큼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복음의 총화입니다.

“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였다.” 1740년 12월 21일 일기에서 웨슬리가 자신이 아침에 선포한 메시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

들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웨슬리는 ‘사랑에 대하여’란 설교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천사의 말도, 세상을 꿰뚫는 모든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존경이나 자기만족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영혼에 대한 자비와 선의입니다. 이 사랑은 박해자들과 영혼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웨슬리의 신학을 ‘거룩한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웨슬리는 1743년 펴낸 『이성과 경건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진지한 호소』에서 영국의 지성인 비평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소디스트 종교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곧 사랑에 대한 것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웨슬리가 말했던 사랑은 육체의 욕망을 좇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즉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감리교운동은 바로 그 거룩한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교회도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럿이지만 하나이며 거룩한 사랑 안에 성령의 연합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은 사랑의 법을 파괴하는 죄가 됩니다. 웨슬리는 ‘분열에 관하여(1786년 3월 30일)’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서로 하나 된 살아있는 몸의 지체로부터 우리를 이간시키려는 것은 사랑의 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우리 모두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며,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욱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를 위한 핑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핍은 항상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원인입니다.”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운동입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거룩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내적인 성화(Inner Holiness)와 외적인 성화(Outer Holiness)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 채우는 일이 바로 내적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일이 바로 외적 성화입니다. 거룩함이 행복인 이유는 바로 거룩함의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내적인 자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웨슬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웨슬리의 최초의 옥외설교는 험벗고 소외된 이들이 모여있는 브리스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운동은 가난하고 험벗고 소외된 이들 속에서,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빵을, 병든 자에게는 약을, 억압당하는 자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섬겼습니다. 사랑은 감리교운동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감리교회 운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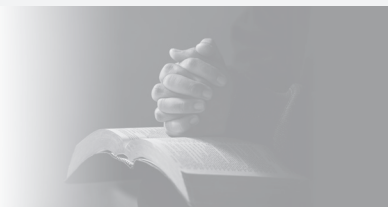
.....

(2) 거룩한 사랑이 감리교인으로서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

.....

찬 송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감리교인의 경제 생활 | 거룩한 청지기 |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성경봉독 시편 62:10

요 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
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시편 62:10)

말씀증거 말은 이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적 소유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어 평가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나의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재산도, 내 재능도 모두가 다 나의 것인 줄로만 알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의 경제관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돈의 사용(1760년)’이라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감리교인의 복음주의적 경제관을 선포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슬리는 돈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훌륭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여행자나 타향인에게 거처를, 과부에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함을, 고아에게 아버지와 같은 자리를, 병든 자에게 건강을, 고통받는 자에게 안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슬리는 감리교운동을 전개하면서 3대 경제원칙을 선포하였습니다.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이익을 챙기면서 남을 해치거나 혹은 과도한 욕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는 벌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저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귀중한 물질을 자신의 육신이나 안목의 정욕, 생활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식사와 값비싼 의복, 기타 사치스러운 것들을 위해서 물질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즉 ‘나눔’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웨슬리는 유대인은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일을 나누어 주고, 바리새인은 자기 소유의 10분의 2를 나눠 주지만, 참 기독교인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현명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먹을 음식, 입을 의복, 신체를 건강하고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요구되는 것을 공급하십시오. 아내와 자녀, 하인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 속한 다른 어떤 이들에게도 이것을 공급하십시오. 만일 이렇게 한 후에도 여분이 있으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선용하십시오. 만일 그래도 남으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용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방법으로 주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더욱 좋은 길’이라는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감리교도라고 불리는 한 청년이 연 수입 30파운드

중 28파운드를 자기 생활비로 쓰고 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고, 다음해 연 수입 60파운드 중 역시 자기 생활비로 28파운드만 쓰고 3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세 번째 해에 연 수입 90파운드 중에 역시 자기 생활비로 28파운드만 쓰고 6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고, 네 번째 해에 연 수입이 120파운드가 되었는데 역시 자기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쓰고 9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감리교 청년이 누구인지 웨슬리는 자신은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청년이 바로 웨슬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운동을 전개하면서 웨슬리는 특별히 많은 극빈자와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슬프게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 것도 줄 것이 없을 때는 친절할 말이라도 건네주십시오. 그들에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 보내거나 가슴 아픈 말을 하지 마십시오. 빈 손으로 돌려보낼지라도 그들이 기쁜 맘으로 당신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그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해 주시길 바라는 대로 당신도 그들을 대하십시오”. 심지어 웨슬리는 노년의 과부들을 위한 집과 가난한 자를 위한 집을 지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또한 1주일에 3회 병자를 방문하게 하였는데, 병자 방문자들에게는 네 가지 규칙을 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1)소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2)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3)병자들을 대할 때에는 절대 청결하십시오. 4)귀족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통해서 철저히 검소한 삶을 살았던 웨슬리는 1790년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재물 축적의 위험성에 대하여”란 설교에서 오늘
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며 부의 축적의 위험성을 다시 경고하였습
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죽을 때 10파운드 이상을 유산으로 남기면
거짓말쟁이이거나 도적으로 불리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 동전 몇 개와 은수저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것
들조차도 다 나눠주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나요?

.....
.....

(2)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어떤 경제생활을 하고 있나요?

.....
.....

찬 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토의 및 광고 사회자
주 기도 문 다함께





감리교인의 사회 생활 | 사랑의 불꽃 |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582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5:13~14

요 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4)

말 씀 증 거 맑은 이



12월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과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죄로 얼룩진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친히 찾아 오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천명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지만,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빛을 조명받아 이제는 그 빛을 발하는 빛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감리교운동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명실공히 크리스천 운동이었습니다. 감리교운동은 내적 성화를 통한 외적 성화 운동이었습니다. 내면에 거룩한 사랑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운동이었습니다.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은 다른 복음주의 운동과 그 궤를 달리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나 개신교의 복음주의 운동은 구체적인 사회변화와 사회개혁까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이고 내적인 경건과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처음부터 세상 한복판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돌보는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웨슬리는 독일 경건주의자들과 결별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당시 귀족화된 영국성공회 안에 갇혀 있는 사제들과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웨슬리는 교회 밖으로 나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웨슬리는 1741년에 병자 방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4,000명의 런던 감리교인들을 모아놓고 누가 병자를 방문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수많은 감리교인들이 기쁨으로 지원하였으나 웨슬리는 46명만을 선출하여, 런던시를 23개 지역으로 나누어 일주일에 세 번씩 각 지역 병자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1747년 『원시 의학』이란 책을 저술해서 국민건강 계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병, 증상, 상처를 알파벳 순서에 따라 명시하고 289가지 표제들로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1)풍부하고 신선한 공기 마시기, 2)소박한 음식 먹기, 3)매일 운동하기, 4)정신적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생활 영위하기. 1746년에는 가난한 병자들을 위하여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가 도왔고, 특별히 설교가이면서 의사인 화이트헤드가 도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30명이 왔는데, 석 달도 안 되어서 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웨슬리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1748년 ‘올드 파운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9명의 과부, 1명의 소경, 2명의 가난한 아이들, 2명의 남녀 종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1772년에는 ‘파운더리’라는 기독교 공동체를 런던에 설립하였습니다. 그 안에 가난한 자를 위한 집, 과부들을 위한 집, 설교가들을 위한 집, 소년들을 위한 학교, 병자들을 위한 진료소, 직장을 알선해 주는 직업 소개소, 은행, 도서관, 교회, 신용조합까지 두었습니다. 또한 1785년에는 ‘나그네친구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친구 없는 나그네, 병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조직하였습니다. 영국 전역에 감리교 신도회가

설립되는 곳마다 봉사 센터를 세웠습니다. 맨체스터만도 이 봉사센터를 통해서 무려 6만 명 이상을 도와주었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중, 상류층이 아닌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상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광부촌 킹스우드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전혀 학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 집’이라는 이름으로 1749년에 2개의 탁아소와 소녀들을 위한 고아원도 설립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신용조합을 세워 운영하였습니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사회구조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운동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감리교인들을 중심으로 전국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리교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웨슬리는 감리교 지도자를 세우는 데 사회적 신분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적어도 1,000명의 감리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민중출신이었고, 8,000명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감리교 속장과 평신도 설교가들과 감리교 시도회를 지역마다 개척한 사람들이 목수들, 제대 군인들, 술집 종사자들, 면직 노동자들, 가죽세공업자들, 깡통 만드는 노동자들, 그릇 만드는 노동자들, 빵 굽는 노동자들과 산업노동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은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여성 중에서는 가난한 계층 여인들, 종살이하는 소녀들, 방적기 돌리는 여인들, 가난한 가정주부들이 용감한 개혁과

과감한 사회개혁의 중요한 직위를 가졌습니다. 감리교회 내에 여성 지도력을 인정해서 공식적으로 여성 설교가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참으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웨슬리는 1774년 「노예제도들 논박함」이란 논문에서 노예제도를 공격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짐승을 사냥하듯이 사람을 사냥해서 상품화하는 노예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회심 이전의 교도소 방문이 출발점이 되어서 회심 이후 교도소 제도 개혁의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형벌제도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가령 토끼를 총으로 쏜 죄, 다리를 파손한 죄, 어린 나무를 자른 죄, 5실링을 훔친 죄 등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모두가 가난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들이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영혼 사랑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의 빛으로, 그리고 사랑의 소금으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한 사람 존 웨슬리의 회심이 전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무규범의 아노미 사회를, 거룩한 사랑의 법으로 치유하고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빛과 소금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

.....

(2)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

.....

찬 송 552장 (아침 해가 뜰 때)

토의 및 광고 사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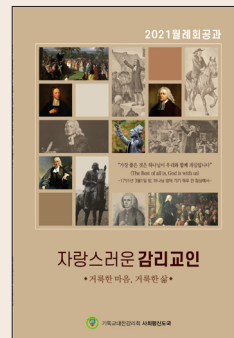
주 기도 문 다함께



저 자

김 영 복 목사

- 감리교신학대학교
- 클레어몬트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Ph.D)
-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교수 및 교목
- 현) 서울연회 도봉지방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 TV(유튜브)」
- 감리교신학대학교 외래교수



발 행 일

2020년 12월 18일

발 행 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감리회관 16층
T. 02)399-4346~8 F. 02)399-4350
kmc.or.kr

편 집 인

사회평신도국 총무 최창환 장로

비 매 품

“나는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로 존재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가르침과
성령과 신앙훈련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 『Thoughts upon Methodism, 1786』 중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